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빅3’ 구도 흔들졌다”

민주, 잠룡들 대권 레이스 시동

박용진 의원 첫 출마 선언
양승조 충남지사 12일 출사표
김두관·이광재 의원 재결음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의 3자 대결 속에서 대권 후보주자들이 이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9일 여야 대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재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며 “행복 국가”를 만들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9일 여야 대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재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며 “행복 국가”를 만들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거쳐 2012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합류했다.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주도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현대차의 차별적 리콜 실태를 지적하며 이름을 알렸다.

12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전장을 던진다. 지역 기반인 충청을 중심으로 세몰이 중인 양 지사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균형발전 비전을 내용을 예정이다. 4선 의원의 중량감에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신이라는 차별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양 지사도 매주 릴레이로 공약을 발표하고, 5·18에 맞춰 광주를 찾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23일) 봉하마을을 참배하는 등 ‘전국구’ 행보에 나선다.

김두관·이광재 의원의 재결음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지금까지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시간이었지만 6월 이후 추월을 자신한다”고 밝히며 출마를 기정사실로 했다.

전국을 돌며 ‘기본자산세’ 설명회를 열고 있으

며, 최근엔 정 전 총리와 의 회동에서 ‘경선 연거론’을 거론하며 이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역사적 책무가 오면 피할 생각은 없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성장 담론’ 구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중부세나 가상화폐 등 정책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빅3’ 주자들의 현금성 공약에도 비판을 가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다른 ‘잠룡’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중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내달 출마를 목표로 검찰개혁 등에 대한 저서를 집필 중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같은 강원 지역주자인 이광재 의원을 돕는 방안도 열어두고 출마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낙연, 조직 다지기 시동...광주·부산서 ‘신복지 포럼’ 출범

17개 광역시·도 출범 예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대표 정책 구상인 신복지 체제를 추진하는 ‘신복지 포럼’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조직 다지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와 9일 부산에서 잇달아 ‘신복지 포럼’ 지역별 창립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광주·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출범할 예정인 신복지 포럼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국가비전을 앞세워 전국적인 세몰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복지 포럼’은 한국의 복지를 오는 2030년까지 소득, 교육, 의료, 주거, 문화, 환경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선진국 수준의 ‘국민생활 적정기준’을 보장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복지 광주포럼’에 직접 참석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신복지 광주포럼 측은 “광주와 부산 포럼 출범식은 영·호남 쌍쌍이 전략을 통해 지지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이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세확산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에는 서울에서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최하는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 전 대표는 국가 책임, 차기정부 비전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4·7 재보선 패배 후 한 달간 잠행해 온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지난 4일부터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광주를 찾은 8일에는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린 ‘노년 스포츠 5·18 기록사진 특별전’도 둘러봤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선다. 이날 행사는 우선 문 대통령이 20~30분간 특별연설을 마친 뒤 방역조치를 고려, 기자단이 자체 선정한 20여명의 기자들과 30~40분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전 각본 없이 이뤄지는 질의응답에서는 여론의 관심이 높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임해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또 ‘조국 사태’나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구상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이뤄지는 특별연설에서는 코로나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여론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을 극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강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친문발 ‘경선 연기론’ 수면위로...이재명계 필적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재보궐선거 참패로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너무 일찍 대권 주자를 내놓으면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야당의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후보 확정 시기를 9월 초에서 11월 초 정도로 경선을 미루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선 연기에 따라 대선 주자간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대권 주자 진영의 찬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 주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조심스럽게 경선 연기 카드를 꺼내놓고 있다.

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7일 TBN 라디오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벌기 아니냐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본선에서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면서 “원칙을 망가뜨리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이며 명분도 없고 실리도 따져보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

지를 선언했던 민형배(광주 광산출) 의원 역시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 연기는 대선 승리의 길이 아니다.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선 후보 경선은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가장 먼저 경선 연기론을 꺼냈던 친문계 전재수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서 “경선 일정은 당헌 개정사항이 아니고 당무위 의결 사항이므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표면적으로는 양쪽 모두 ‘선거 전략’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문 진영이 자체 제3 후보를 옹립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선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제기됐다.

현재 지지율 면에서 앞서고 있는 쪽과 추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하는 진영간 입장차도 있지만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이 지속하면서 경선 연기론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특정 대권 주자를 위한 경선 연기론이 아니라 당의 힘을 모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선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해결 주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평동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비대면 ‘주민 간담회’를 했다.

지난 7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평동산단단지 인근 주민대표들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광산구 의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민들은 광산구의회와 광산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자문위원회설치를 건의했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일반폐기물처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폐기물처리시설반대 공동대책위 대표는 광주시

와 도시공사가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건강과 농산물의 피해와 향후 늘어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광주시의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 바랍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N&B